왕십리

2006년 7월호

평신도 신학 / 교육목사 문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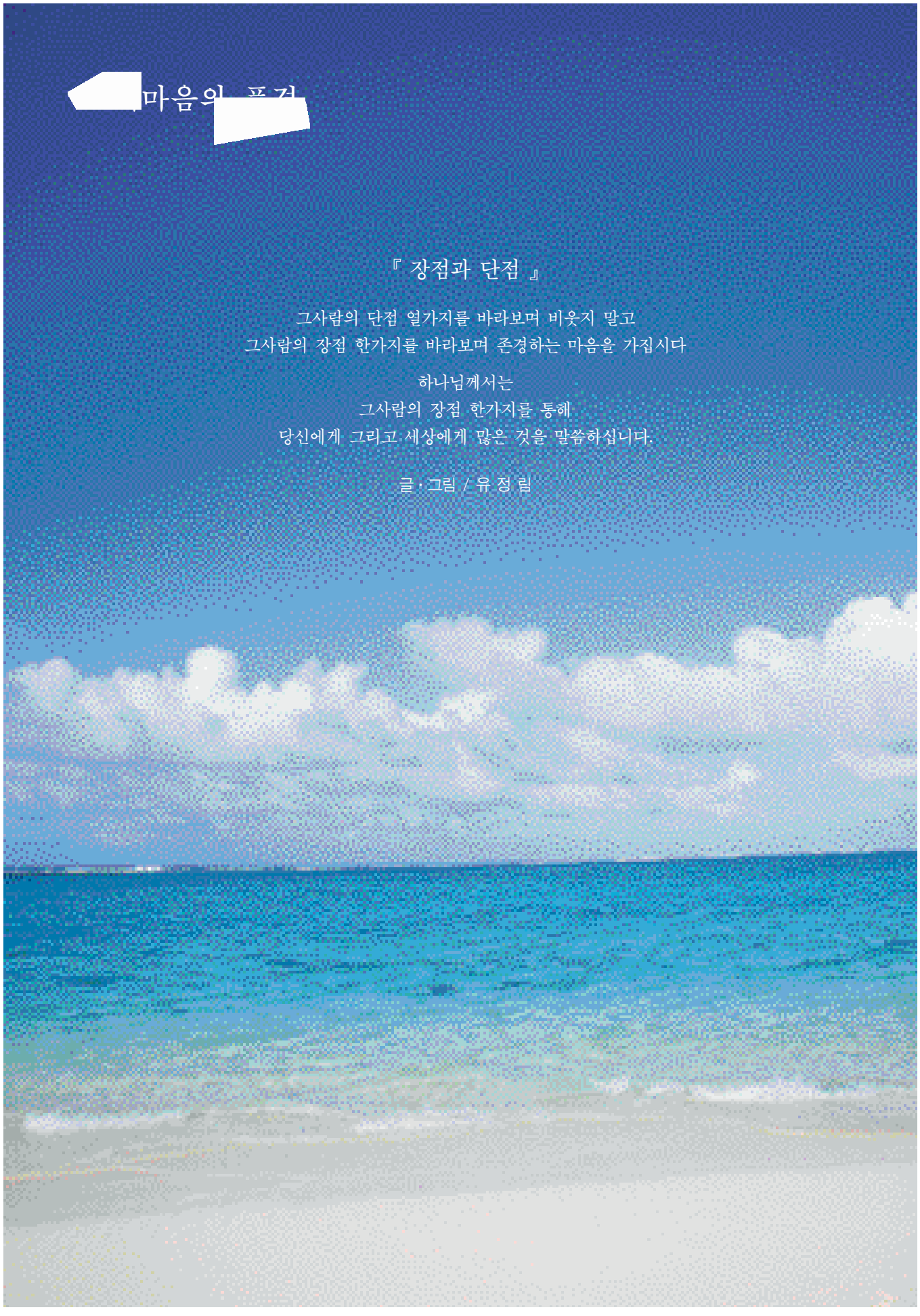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지식

성경인물 / 목사 박영

기도의 사람 -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들 - 김석호 전도사

학생과 눈높이 맞추는 참 스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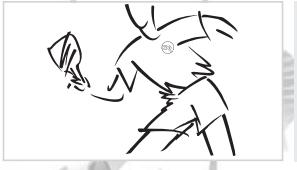
마음의 풍경

『 장점과 단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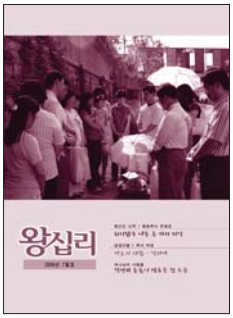
그사람의 단점 열가지를 바라보며 비웃지 말고
그사람의 장점 한가지를 바라보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사람의 장점 한가지를 통해
당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글 · 그림 / 유 정 림



Contents



2006. 7월호

장년 1부 성도들이 청계천에서 노방전도를 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

4 출애굽단상
- 내가 깨어져야

5 에디오피아에서 온 편지
- 문맹 퇴치 사역 훈련을 마치고

6 평신도 신학
- 하나님을 아는 두 지식 :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10 성경인물
- 기도의 사람, '엘리야'

12 하나님의 사람들 - 김석호전도사

15 - 학생과 눈높이 맞추는 참스승

왕십리 이모저모

17 - 2006년 여름 출애굽운동에 대하여(1)

왕십리 블로그

18 - 청년부 게시판에서

우리집 - 작은생각 큰 행복

20 부부 함께 이야기하기 - 두 번째 이야기

함께 알아가요
- 몽골어 : 결혼하셨습니까?

22 - 중국어 : 당신은 성경이 있습니까?

신간안내

24 - "어! 이번엔 이런 책들이 들어왔네!"

25 책

26 음반

광고

27 - 다니엘배 탁구대회

일상의 작은 그림
- 빗 속 달리기

내가 깨어져야…….

담임목사 오치용

대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총회 차원의 부흥운동을 전개하면서 점점 더 대부흥의 기운이 한국교회로 퍼지게 하시는 주님의 운동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수도노회에서 대부흥 운동을 더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를 하던 날, 교단의 전 총회장께서 노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먼저 목사와 장로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문득 대부흥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제목이 떠올랐다. 그렇구나. 내가, 내가 깨지는 것이다.

사실 부흥운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회개를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남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가, 또는 총회가, 한국교회들이 회개해야 하고,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그 핵심이 무엇일까? '내가' 라는 말에 있음을 다시 깨닫는다. 내가 깨어져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그래, 목사님이 먼저 깨어져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역시 부분적인 각성이다. 역시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깨어져야 한다' 는 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도 깨닫게 된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 존재를 향해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본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을 가리고, 묶고, 막는 많은 나 아닌 존재들이 있음을 본다.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으면서 혹은 환경의 영향, 풍습의 옷들을 입으면서 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 아닌 남도 아닌 그 무엇을 본다. 그것이 바로 방해이다.

그게 내가 아닌 나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 막는다. 우리가 여름마다 본격적으로 잘못된 나에게서 탈출하는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일에 여름만큼 좋은 시기가 없다. 여름은 막 탈출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작용하는 계절이니까. 바로 그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어지는 변화를 이루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여름을 맞이할 수 있다.

여름출애굽(Summer Exodus). 이 운동으로 여름을 보내면서 참된 자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밝히 빛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증거를 보이기를 기원한다. 한 여름에 큰 엑소더스의 '나' 이길 바라면서…….

문맹 퇴치 사역 훈련을 마치고

엄경섭 · 차남준 선교사님은 본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으로 현재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본 글은 본 교회 선교게시판의 선교사 편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Tulsa, Oklahoma)에서의 문맹 퇴치 훈련을 마치고 지난 금요일 이디오피아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18년 만에 가족을 떠나 혼자 하는 여행으로, 이디오피아로부터 미국까지의 아주 멀고 긴 여행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 속에는 내심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었던 축복된 여행이었습니다. 모든 비행편이 예정대로 순조로웠으며, 만나야 할 사람들을

바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순간도, 빈틈 없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LEI(Literacy Evangelism Institute) 본부에는 세상 저 끝과 이 끝에서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들이 문맹퇴치사역 훈련을 받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대하는 것이 서먹서먹하였지만, 함께 먹고 자며 훈련 받은 지 채 3일이 되지 않아 우리는 한 형제 · 자매임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그 분의 살을 함께 나눈 형제 · 자매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하나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거기 모인 모두가 함께 공유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훈련은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7시 반 정도에 시작되어 오후 4시에, 심지어는 저녁 10시에나 끝났습니다. 우리를 가르친 분들 중에는 20년, 30년 동안 아프리카 현지에서 문맹 퇴치를 위해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영적인 감화도 풍족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만들고, 그 글을 가르치고, 현지 교사를 세우고, 훈련시키는 모든 방법을 배웠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굼즈 문맹 퇴치 사역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나누고 조언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는 10만명이 넘는 굼즈의 사람들에게 문맹 퇴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참으로 막막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우리 가정이 거하고 있는 선교기지 만큼이나 마음도 깊은 숲 속에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훈련을 마친 지금은 방향을 잃어버린 낯선 길에서 나침반을 손에 쥐고 있는 듯한, 어둠 속에서 불빛을 발견한 듯한 느낌과 더불어 기쁨이 있습니다.

2년 전 기초작업을 하였던 굼즈 언어 입문서를 정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돕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교사 강습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교사 강습회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교재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얻은 지식과 감동들을 이들 사역자들과도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받은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굼즈 교사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맹 퇴치 사역을 통해 굼즈의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글로 복음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지식: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교육목사 문병호

1.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시며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사랑이신 삼위일체시다.

하나님은 자기 필연성에 따라서 자기 경륜과 작정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는 영원 물질을 기본으로 자기 위에 있는 이데아를 원형으로 현상을 조성한 것이거나(플라톤) 존재의 근원으로부터의 유출이 아니다(신플라톤주의).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물과 함께 혹은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범신론) 창조의 질서대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다(이신론). 그러므로 존재일반으로부터 하나님의 개념에 이르고자 하는 것(존재의 유비)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를 계시하셨고, 창조주로 자신의 신분을 성경과 자연에서 확정(identification)하셨다(ex. 창 1:1; 요 1:1; 시 19:1~6; 잠 8:22~31; 욥 38~41).

2.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속주로 계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인성과 신성을 지닌 중보자(mediator)가 되심으로써 창조주가 구속주이시며 또한 구속주가 창조주이심이 계시된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협약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서, 그의 동정녀 탄생을 통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 구속방법으로서, 그리고 선택된 백성의 구속이 작정되었다. 구속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창조와 인류를 자신에게로 회복시키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주 되심은 성경에 증거된 바이며(요 5:39), 모세가 기록한 바이다(요 5:46).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심은 원복음(창 3:15)으로 이미 계시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자로서 예언되었다(사 19:20).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구약시대에도 계시되는데 그의 현재(顯在, 창 18:1~33; 28:12; 출 3:2; 13:21~22; 14:19~29; 23:20; 32:34,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호와의 사자의 임재를 나타낸다; 수 5:13~15; 호 12:3~5; etc)와 환상(겔 1:26~28; 단 7:13; etc)에서 현저하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고전 1:30-31).

3.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로 계시하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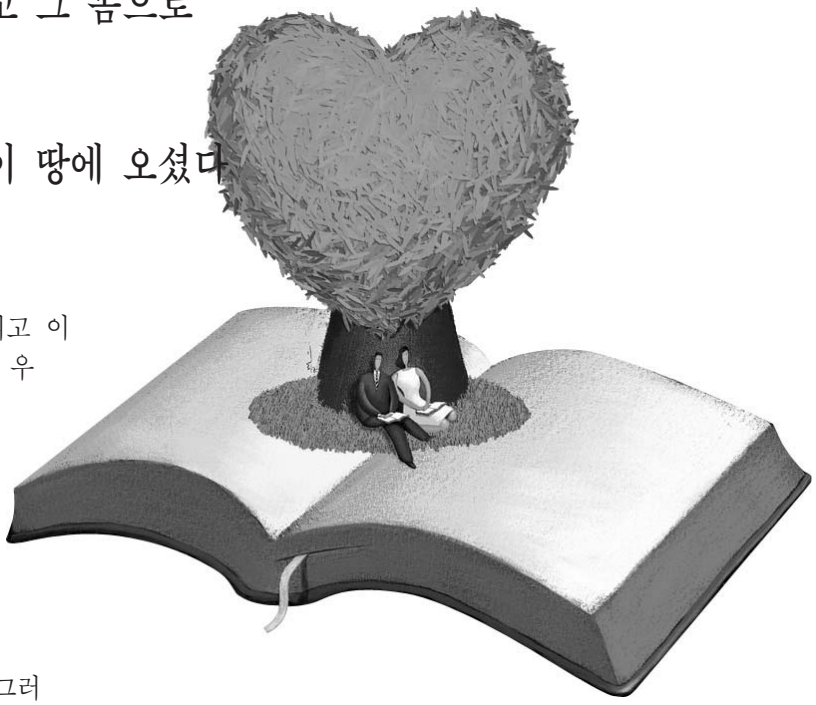
그리스도가 육신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진 하나님의 존재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말씀

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계시가 정점(culmen)에 이른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며(요 14:10 ~ 11; 17:21)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기 때문에(요 10:30)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요 10:15). 그러므로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고(요 17:26),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요 14:7).

하나님은 영이시다(요 4:24; 고후 3:17).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 가운데 하나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듯이(요 1:18; 17:4, 6) 성령은 아들을 증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요 15:26; 16:14).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전 12:3). 만물은 아버지께 속하고(of) 아들을 통하여서(through) 지어졌으며 성령 가운데(in) 존재한다(Bavinck).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신다. 하나님의 자기 지식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지식을 말씀(로고스)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만 이를 알 수 있다(고전 2:10~16). 이러한 지식(계시된 지식)은 처음에는 말씀으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동시에 그의 현재를 계시한다.
이러한 표상과 현재가 만나는 점이 로고스의 성육신이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몸으로
구원을 이루시려고
로고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다음으로는 육신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된다. 삼위 하나님의 지식도 말씀 가운데, 육신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계시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재위(sessio)하시면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중보하신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중보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린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6).

4. 무한한 영 곧 절대적 인격이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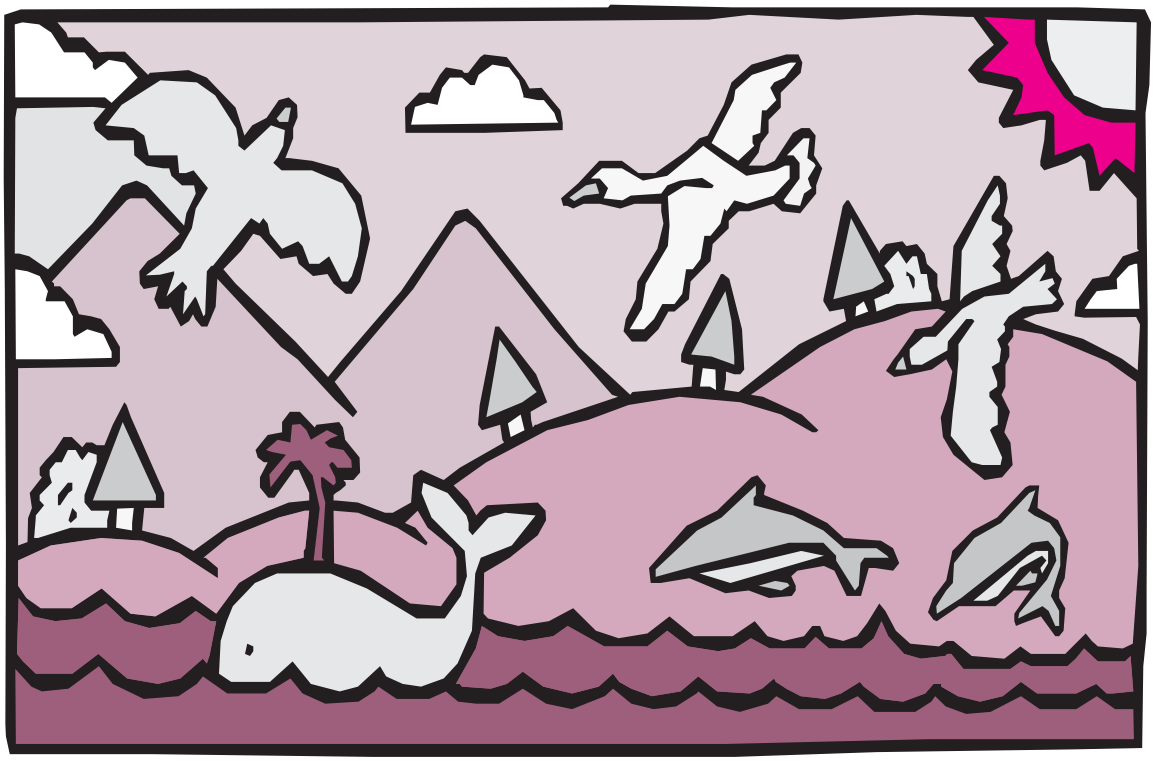
하나님은 철학적으로 관념화한 무한자(the Infinite), 전체(the Whole), 모든 존재의 기원(the Whence of all existence), 영원자(the Eternal)로서 정의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으로서 스스로 계신 절대적 인격이시며 계시주,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이시다.

하나님은 자증력이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신다. 오직 스스로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필연성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계시하시고 역사(歷史) 속에서 역사(役事)하신다. 그리고 지으신 것을 지키시고, 선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생명(vita absoluta)으로서 생명의 창조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욥 10:12)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주가 되신다(막 10:45).

5.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되지 아니하시며 형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시며,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시다.

말씀(Logos)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셨으며 그 육신 가운데서 구원의 협약을 성취하셨다. 그 육신 가운데서 계시의 정점을 보이셨고, 구원을 다 이루셨다. 로고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제 그림자로서 계시던 하나님의 인격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리고 그 육신 가운데 양성에 따라서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시고 이루셨다.

이 중보자가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는 인격으로 계셨다. 다만 아직 몸을 입지 아니하시고 그림자로 계셨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인격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격이 그림자로 계셨다(이를 顯在라고 부른다). 구약 백성들도 비록 그림자였지만, 제 2위 하나님이 인격으로 존재함을 믿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동시에 그의 현재를 계시한다. 이러한 표상과 현재가 만나는 점이 로고스의 성육신이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몸으로 구원을 이루시려고 로고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계시가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한 계시였음이 드러났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빛으로 증거 되었으나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으나(요 1:3~5, 9~11), 이제 그 빛이 육신 가운데 오심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요 1:11~14, 18, 3:16)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기도의 사람, '엘리야'

부목사 박 영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위대한 선지자를 거론하라면 단연코 엘리야가 아닌가 싶다.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함께 있었다. 그가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증거자로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를 의미한다. 엘리야가 사역을 했던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였다. 아합은 역대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었다(왕상16:30). 그의 아내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이었다. 그는 온 나라에 바알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었다. 방탕하고 타락한 예식들이 곳곳에서 성행하였다. 엘리야의 사역지는 누가 보아도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었다. 더욱이 북 이스라엘은 남 유다에 비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왕들로 가득했다. 어쩌면 북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우상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신앙의 불모지, 메마른 땅과도 같았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첫 번째 경고를 하였다.

아합 왕이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데, 내 말이 없으면 결코 수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오.(왕상17:1).

단칼에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왕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엘리야의 담대함은 아합과의 2차 대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은 기나긴 가뭄(3년 6개월)때문에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가뭄을 선포했던 엘리야는 아합 앞에 다시 섰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어찌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계속 좇고 있소?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선지자였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강한 힘과 담대함을 불어 넣어주셨다. 그의 담대함의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엘리야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손길은 머물고 있었다. 가뭄을 선포한 후에 그릿 시냇가에 홀로 숨어 지낼 때도 까

그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두움에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었다.

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제공하셨다. 얼마 후 그릿 시냇가의 물마저 바짝 말라 버리자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셨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두려움과 좌절은 있을 수 없다.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기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와의 850:1의 대결. 삼척동자도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싸움 앞에 엘리야는 요동치 않았다. 그에게서 두려움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기도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바알 선지자들은 오정이 지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심지어 응답이 없자 자신의 몸을 자해하였다. 한편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단을 쌓기 시작했다(왕상 18:32). 그리고는 각을 뜬 송아지에도, 땔감에도, 도랑에도 물을 가득 부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뜻밖의 행동으로 의구심이 가득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다. 마치 땀이 핏방울이 되었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보는 듯 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보게 하소서.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소서.

그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두움에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었다.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하늘이 감동되어 하늘로부터 뜨거운 불이 내렸다. 그 불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도랑의 물을 순식간에 핥아버렸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가? 지금 넘지 못한 산이 가로 막고 있는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영적 싸움의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그 열쇠를 갖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참된 일꾼, 엘리야 그를 본받자.

학생과 눈높이 맞추는 참스승

고등부 지도 김석호 전도사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귀가 닳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부모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심지어 고2, 고3이 되면 입시대비를 하기 위해 아이를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보내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의하고, 자신을 거침없이 제물로 드린 이삭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성경은 자녀를 세상 교육에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와 왕십리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김석호 전도사를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인 아버지와 오직 살림만 하시는 어머니 안에서 2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5년마다 임지를 옮기셔서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한 적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까지 시골에서 자라면서 날마다 논과 밭, 산과 들을 앞마당으로 여기고 생활하는 새까만 얼굴의 시골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행복했던 유소년기였습니다.

도시로 이사한 후 달라진 환경에서 공부에 대한 눈이 열렸고 책과 호기심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인 범위 안에서 대학과 대학원까지 목표한 바대로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일어났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겠다고 선택한 전공 학문을 완전히 뒤로 하고 성경과 신앙서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은 개척교회에 자원해서 찾아가 주일학교 교사를, 주중에는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성경공부를, 방학 중에는 농어촌 무교회 지역에서 교회개척을 위한 복음전도를 하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생활했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던 너무나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나가게만 보였던 전환기는 군 생활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시절 엄청난 방황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의 열정과 나의 만족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과 함께 장래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주를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신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Q. 유학생활을 회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제대로 신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또한 선교에 대한 관심으로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대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준 아내와 결혼 후 곧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영국 에딘버러에서의 10년 동안의 유학생활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유학생활 속에서 만난 많은 신학 서적들과 다양한 목회자들, 그리고 공원에서 만난 많은 자연의 친구들, 항상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가족들, 이 모두가 나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 인종 안에서 신학의 의미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른 경험과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조금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 것이 유학생활과 공부를 통해 얻은 값진 은혜였습니다.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있어 조금은 넓고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셋 중에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을 얻은 것도 유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압박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쉽지 않은 유학생활이었지만 아이들의 고향이요, 내 자신의 제 2의 고향을 얻은 소중한 유학생활이었습니다.

Q.목회자의 길을 늦게 시작하신 것 같은데 계기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신 후에 곧바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자체가 대학생활에서 커다란 기쁨이었고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에 대한 꿈에 빠져 평신도 선교사를 꿈꾸기도 하고, 유학생활을 하면서 신학공부에 빠져 신학자가 되고자 하는 비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신학이라는 학문은 책상에서 시작하면 현장에서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목회 현장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지 본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대로 따르고 싶을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자연을 미치도록 사랑하고픈 마음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만나는 대상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할지는 계속 고민해야 되겠지만, 내 자신을 죽이고 사람과 만물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고 싶을 뿐입니다.

Q.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고등부에서 적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한 것은 거의 없고, 단지 아이들을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합니다. 그래서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또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좌우

할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비전으로 무장한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말씀에 의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시기이므로 학업에도 전념하도록 목적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성경공부, 그리고 영적 훈련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형성돼 믿음의 생활과 학업의 생활이 잘 균형 잡힌 인재로 성장하는 그런 교육체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과의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정곡을 찌르듯이 물어보시는군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무용지물임을 청소년 사역자들이 강조하더군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는 필수겠지요. 현재 나름대로 노래방이나 게임방도 함께 가보고, 삼겹살이나 피자, 떡볶이도 먹고 하면서 시도하지만 쉽게 결실이 나타나지는 않더군요.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원과 과외 등으로 인해 주중이든 주말이든 자유로운 시간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단 하루 그것도 오직 9시에서 12까지 3시간 정도가 그나마 가장 자유로운 시간인데, 예배와 성경공부 찬양대 연습을 빼면 편안한 개인적 대화를 갖기란 20~30분 정도입니다. 주일날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방을 시도했고 따로 개인적 시간을 맞춰서 만나기도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둘째로 어려운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 취미, 여가생활, 연예인 그리고 대화방식이나 사고방식 등은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거의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그들의 고민을 깊이 있게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대화로 그치고 만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 현재 당면한 책임입니다. 형 · 오빠까지는 안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삼촌 정도까지 가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함께 뒹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Q. 교회 내에서 장년2부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탁월한 강의를 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탁월한 강의는 과찬의 말씀이고요. 단지 장년 2부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을 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12사도들처럼 3년 동안과 같은 신앙 또는 영적(말씀과 기도)훈련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이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똑같이 필요함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교회는 모이고, 조직하고, 흩어지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런 범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올바른 관계 형성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신앙이란 교회, 가정, 사회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참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영적인 삶이요, 인간다운 삶임을 살펴본 것입니다.

취재 박병수 기자

상반기 교사 교육 세미나

6월 1~3일까지 유년부 예배실에서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정성근 장로) 주최로 2006년 상반기 교사교육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성경적 지도자'를 주제로 하여 아나툴레 총무인 이혁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연구 및 공과준비를 위한 '귀납적 성경연구 이론과 실제'를 에베소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정성근 장로는 이번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아이들에게 더 풍성한 말씀의 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근본이기 때문에 다양한 말씀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교회교육 세미나가 기획되었지만 하루 평균 90명씩 참석하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60여명의 참석으로 출석률이 저조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반기에는 우리교회에 모신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가질려고 합니다. 앞으로 교회와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사들이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 다양한 교사 교육 세미나가 개최되고 그 열매가 풍성해 지길 기도해 본다.

선교후원회 행사

5월28일 주일 오후 5시에 중등부 예배실에서 선교후원회가 주최한 선교후원회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1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다. 매월 진행되던 선교후원회 월례회를 정기 선교특강으로 바꾸어 처음 진행되었다. 필리핀에서 고산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권영수 선교사의 선교사로 소명 받은 계기, 선교지에서의 체험, 현지 선교 사역에 대한 강의와 필리핀 자매들로 구성된 워십팀의 찬양과 워십이 첫시간을 가득 채웠다. 워십에 대한 전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아 전통춤을 변형하여 안무를 한 '팍산바(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오바브월(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등의 워십과 찬양은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앞으로의 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선교후원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취재 장숙현 기자, 사진 박병수 기자

권영수 선교사가 생생한 현지 선교경험을 들려주고 있다.

필리핀 자매들로 구성된 워십팀의 찬양과 워십

왕십리지 수습기자 모집

오랜 역사속의 본 교회에서 성도들의 내일의 비전을 만들어 갈 소명있는 기자를 모십니다.
그동안 왕십리지는 신문에서 격월간지로 외형의 변화는 가졌지만 교회 내외의 각종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구석 구석의 소식을 실어나르며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을 그려 내가는 성장하는 왕십리지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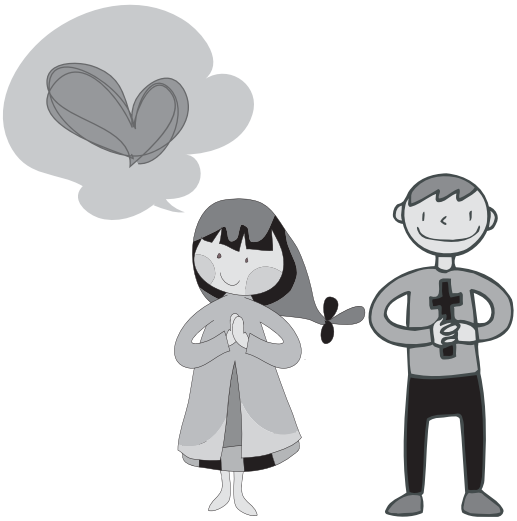
함께 하실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취재기자 : 0명
사진기자 : 0명
문서발송 및 원고정리 기자 : 0명
자격 : 본 교회 출석 교인, (장년 서리집사 대 환영)

2006년
여름 출애굽운동에 대하여 (1)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개요

★ 일 시 : 2006년 7월 27일(목요일) ~ 29일(토요일)
★ 장 소 : 백봉산 기도원
★ 주 제 :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 주제성구 : 창세기 1 : 24-28
★ 교육목표 :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와 생명의 귀중함을 배우고,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배운다. 그리고 말씀 통해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기도로 통해 직접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 내용 : 27일 첫날은 담임목사님 말씀으로 초등부만의 재미있고 즐거운 성경학교의 문을 엽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에는 성경적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낸 나니아 연대기 영화와 연극을 보여주고 왕초끼리의 끈끈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문화만들기 코너게임과 레크레이션 강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은 QT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꿈꾸게 하며 말씀 후에 선생님들과 함께 통성기도를 올림으로 주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밖에도 간증시간, 재미난 율동과 찬양, 게임, 성경퀴즈, 자체 특별활동 발표 등 알차고 재미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교역자를 비롯한 전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왕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위엄과 존귀가 보석처럼 빛나도록! 왕초 여름성경학교에 귀댁의 귀한 자녀를 초대합니다. 7월 27일 아침 8시 30분까지 왕십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2006 청년부(YEM) 여름수련회

★ 일시 / 2006년 7월 5일(수) ~ 8일(토)
★ 장소 / 서산 엘림하우스
★ 주강사 / 이문범 목사 (총신대 성지연구소 간사 , 수원 사랑누리교회 담임)
★ 주제 / 신앙의 개척자(사 43:16)

■2006 영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 일시 / 7월 7일(금) ~ 9일(주일) 오전 10시
★ 장소 / 영아부, 유치부실

■사무엘전도회 여름수련회

★ 일시 / 7월 16일(주일) ~ 17일(월) 백봉산 기도원
★ 강사 / 박충권 목사

■장년 1부 · 다니엘전도회 여름수련회

★ 일시 / 7월 16일(주일) ~ 17일(월) 왕십리 교회
★ 강사 / 문병호 목사

왕십리블로그

이번달 왕십리 블로그는 청년부 게시판의 '나눔과 간증'에서 퍼왔습니다.

게시자 : 비키
제 목 : 마른 땅 같이 사모함.
날 짜 : 2005/07/13

아침에 출근하면서 읽은 말씀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143:6)란 말씀
에 눈이 멈췄습니다. 마른 땅 같이 사모함.

신동우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김귀라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라고..

제 나름대로 사모한다고 생각했는데..아직 멀었나 봅니다.
좀더 간절해야 하나봐요. 물을 기다리는 마른 땅처럼…….

방법을 가르쳐주십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라고…….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주의 성령받아 주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새부대, 새 항아리가 된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철철 넘쳐서. 주변으로 많이 흘러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게시자 : 최인택 제 목 : 참으로 맛있는 부스러기 은혜
날 짜 : 2005/07/10

회사에서 신입사원 특별행사가 갑자기 생겨
거의 못갈 것 같은 절망적인 분위기였지요.
그러나 수련회 가고 싶은걸 어떻하나.
산넘고 물건너 왔지요.
화성 -> 수원 -> 분당 미금역 -> 분당 야탑역
-> 충주 -> 제천수양관
야탑에서 찬식형 차를 타고 오는 도중
찬식형이 참 짧지만 탁월한 어록을 남겼습니
다.
"내가 야구를 왜 좋아하는 줄 아냐?"
"축구, 농구, 배구에 희생이 있는거 봤냐?"
"야구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팀을 위해 희생
을 하잖아."
"희생타, 희생번트를 통해서... 자기는 OUT되
지만 루상에 나가 있는 주자는 득점하거나 한
베이스를 진루하잖아."
그 때는 조수석에 앉아 가볍게 흘려 듣고 그
냥 피식 웃었는데,
토요일에 말씀묵상 할 때 생각해보니
아하! 그렇다. 희생이다. 십자가의 공로.
내가 OUT(죽고) 네가 사는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야구를 하면 할수록
만루홈런보다 희생번트 하나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
비록 공은 못잡더라도 몸을 날리며 끝까지
공을 쫓아가는 그 투지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 헌신코자하는 마음의 중심)

부부 함께 이야기하기 - 두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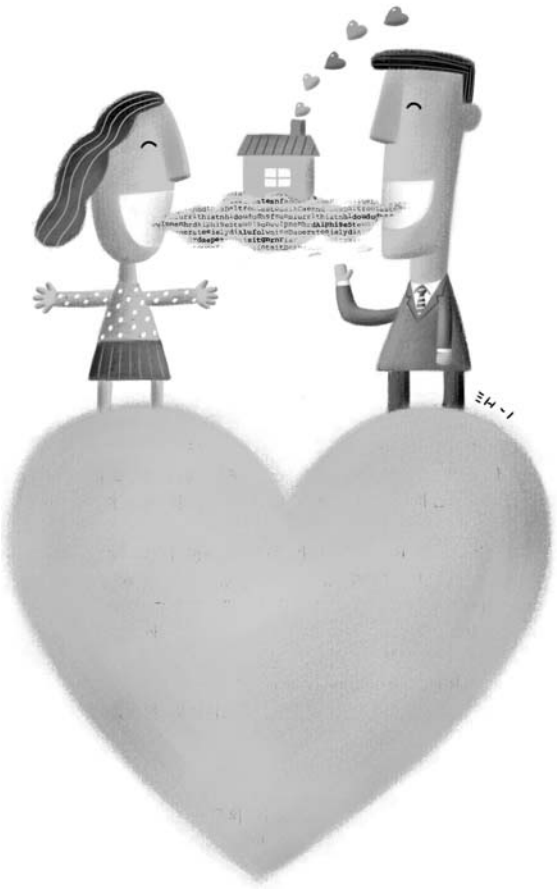
'부부함께 이야기하기 첫 번째 글'에서 부부의 대화는 무엇인지, 한국인 부부의 의사소통은 어떠한 유형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의 의사소통은 자기 자신을 배우자에게 노출시켜 생각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과 목표를 알게 되고, 또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다. 한국 남편들은 권위 지향적, 지배 지향적 의사소통 유형이 특징적인 반면, 부인은 소심 지향적 희생 지향적 의사소통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한국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의 특징은 가부장제도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부부의 갈등과 부부의 대화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바람직한 부부의 대화에 대해 요약하려 한다.

상담가 펠트(Pelt)가 말하듯이 위기란 인간의 행복을 위협하거나 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의미한다.(사춘기 청소년들의 위기상담,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그러한 사건들 자체의 문제 보다 그러한 위기의 해결과 해결방법에 따라 위기가 부부의 삶에 주는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즉 갈등이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한 면은 위험이고 또 다른 한 면은 좋은 기회가 된다.(김기열, 위기 개입론, 대황사, 1984) 이것은 갈등에도 유익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부부는 각각 성장배경, 사고방식,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 부부 갈등을 해소하고,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미국내 266개 상담소 보고를 바탕으로 한 부부 문제 조사에서, 부부 10명중 약 9명이 부부 대화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 이 표본에서 부부 대화문제는 자녀관계로 인한 가족문제보다 두 배가 많다.(커뮤니케이션: 86.6%, 자녀: 45.7%, 성: 43.7%, 금전: 37%, 여가: 32.6%, 인척: 28.4%, 불충실: 25.4%, 가사: 16.7%, 신체적 학대: 15.6%, 기타문제: 8%)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라고 할 정도로, 이 조사는 부부 위기와 대화의 상관을 크게 나타내고 있다.

부부의 대화유형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 양태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1) 양과 방향에 따른 분류

대화의 방향에 따라 일방형, 쌍방형, 침묵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방형이란 부부 한쪽만 계속 말하고 한 쪽은 계속 듣는 유형이다. 쌍방형은 부부 두 사람이 말하는 양이 비슷해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침묵형은 부부 두 사람 모두 대화를 잘 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 유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쌍방형이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침묵형이다.(최규련,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대화법, 신정출판사 2001)

대화의 양과 방향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더라도,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침묵하는 유형인지, 일방적으로 대화를 쏟아 붓는 유형인지 생각해 본다면, 부부간의 대화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

2) 언어표현과 감정표현 정도에 따른 분류

언어표현과 감정표현 정도를 기준으로 친숙형, 억제형, 표출형, 차단형으로 구분한다. 친숙형은 언어표현, 감정표현 두 가지가 잘 표현되는 유형이다. 억제형은 언어표현은 많으나 감정의 표현은 적은 유형이다. 표출형은 감정의 표현이 많으나 언어표현이 적은 유형이고, 차단형은 언어표현, 감정표현 두 가지 모두 잘 안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들 중 가장 바람직 한 것은 친숙형이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차단형이다.(최규련, 2001)

		감 정 표 현	
		적 음	많 음
언어 표현	적음	차단형	표출형
	많음	억제형	친숙형

부부의 대화에 자신의 감정표현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부부대화의 질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신이 감정을 부드럽게 대화에 담아보는 연습은 부부 대화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3) 친밀함의 수준에 따른 분류

첫번째는 진부한 말(cliche)의 단계이다. 두번째는 사실을 보고하는(reporting the facts) 단계, 세번째는 생각을 교환하는(exchanging thoughts) 단계, 네번째는 감정을 나누는(sharing emotions) 단계, 다섯번째는 하나가되는 느낌의(feeling oneness) 단계이다.(강병문(총신대 교수), 주요 가족 병리 현상의 통합적 이해, 미간행)

첫번째는 습관적인 말의 유동을 뜻한다. 실질적 대화소통이 아닌, 그냥 인사에 그치는 말이다. '집 잘 봐요.', '회사에 잘 다녀오세요.' 하는 말들이다. 두번째 사실을 보고하는 단계는 서로 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서로에게 얘기하고 나누는 단계이다. 곧 삶의 사건을 공유하며 삶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대화의 수준이다. 세번째 생각을 교환하는 단계는 서로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보다 나은 일치된 대안을 만들어 내는 단계이다. 네번째 감정을 나누는 단계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편견이 치료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신뢰와 솔직함, 담대한 용기 그리고 절대적 사랑을 요구하는 단계이다. 감정을 나누며 자신의 행동과 감정의 원인을 생각할 수 있고, 내면의 알지 못했던 모순도 발견할 수 있다. 다섯번째 하나되는 느낌의 단계는 말 그대로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가 됨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충분한 대화의 시간. 조금하지 않은 환경, 집중력이 있을 때 이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 탐욕과 경직된 마음, 인생의 목표 차이가 있다면 이 단계는 경험하기 어렵다.

부부대화 연구자들은 무엇보다 부부의 생각과 감정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을 돕는다고 보고한다. 자신의 대화 유형과 부부의 대화유형에 대해서 부부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노력하면 부부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혼하셨습니까?

몽골어예배통역 하 영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몽골의 전통 결혼은 보통 일주일 동안 합니다. 시골의 경우는 그렇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결혼회관에서 서양식이 가미된 현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난 뒤에는 바로 옆에 있는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러고 난 뒤 하객들과 함께 피로연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춤을 추는
그야말로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에 관한 회화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 Та гэр бүлтэй юу? 결혼하셨습니까?
타 게르 불테 요.
나 : Тийм ээ. гэр бүлтэй. 예, 결혼했습니다.
티메, 게르 불테.
가 : Хүүхэдтэй юу? 자녀가 있으신지요?
후흐드테 요.
나 : Хүү (охин) цэцэрлэгт явдаг. 아들(딸)이 유치원에 다닙니다.
후 (어힝) 체체를레그트 야브다그.
가 : Хэдэн настай вэ? 몇살입니까?
헤등 나스테 왜.
나 : Таван настай. 다섯 살입니다.
타왕 나스테.

당신은 성경이 있습니까?

중국어예배지도 목사 최태범

오늘 배울내용은 '당신은 성경이 있습니까?'입니다.
你(nǐ)有(yǒu)圣(shèng)经(jīng)吗(ma)?
(니유썽징마) 당신은 성경이 있습니까?

새로운 단어 - 生(shēng)词(cí) (썽츠)

- ▶ 圣(shèng)经(jīng) (썽징) 성경
- ▶ 信(xìn)仰(yǎng) (씬양) 신앙
- ▶ 为(wéi) (웨이) 위하여
- ▶ 要(yào) (야오) 원하다 해야 한다.
- ▶ 宗(zōng)教(jiào) (중지오) 종교
- ▶ 耶(yē)稣(sū) (예수) 예수
- ▶ 死(sǐ)了(le) (스러) 죽었다
- ▶ 信(xìn) (씬) 믿다

会(huì)话(huà) (후이화) 회화

A. 你(nǐ)有(yǒu)圣(shèng)经(jīng)吗(ma)?
(니유썽징마?) 당신은 성경책이 있습니까?
B. 我(wǒ)没(méi)有(yǒu)圣(shèng)经(jīng)
(워메이유썽징) 나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A. 你(nǐ)有(yǒu)宗(zōng)教(jiào)信(xìn)仰(yǎng)吗(ma)?
(니유중지오씬양마?)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B. 没(méi)有(yǒu) (메이유) 없습니다.
A. 耶(yē)稣(sū)为(wéi)我(wǒ)们(men)死(sǐ)了(le)
(예수웨이워먼 스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B. 我(wǒ)们(men)要(yào)信(xìn)耶(yē)稣(sū)
(워먼야오씬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어! 이번엔 이런 책들이 들어왔네!”

일.반.도.서

1% 변화가 100% 삶을 바꾼다 __ 푸른솔
18인의 위대한 황제들 __ 이른아침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 __ 맑은소리
4일간의 기적 __ 한스미디어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__ 사회평론
간찰, 선비의 마음을 읽다 __ 한얼미디어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__ 웅진지식하우스
건강과 성공, 10체질에 달려 있다 __ 웅진윙스
고바우 김성환의 편편상 __ 인디북
곰보빵 __ 꽃삽
공부의 즐거움 __ 위즈덤하우스
광야(청소년현대문학선 27) __ 문이당
괜찮아, 내일은 다를거야 __ 대교베텔스만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 __ 사계절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__ 지안
그때는 몰랐습니다 __ 예문
김철의 몸살림 이야기 상,하 __ 백산서당
김화영의 알제리 기행 __ 마음산책
깨진 유리창 법칙 __ 흐름출판사
나는 왜 이런게 궁금할까? __ 플래닛미디어
나만 혼자 몰랐던 내 우울증 __ 팝콘북스
나밖에 모르는 사람 __ 나무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오른다 __ 위즈덤하우스
남자는 다 그래 __ 한스컨텐츠
내 DNA를 가지고 대체 뭘 하려는 거지? __ 황금부엉이
너는 스무살, 아니 만 열아홉살 __ 사계절
뇌의 기막힌 발견 __ 네모북스
누가 나의 건강을 빼앗는가 __ 길벗
눈을 뜨시오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__ 도서출판강
단테의 빛의 살인 __ 황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__ 프리엄
독 짓는 늙은이(청소년현대문학선 23) __ 문이당
동물과의 대화 __ 샘터
두잉 굿, 선행은 인생의 선물이다 __ 기파랑
디셉션 포인트 1, 2 __ 대교베텔스만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 __ 다섯수레
또 다른 목소리들 __ 소명출판사
뚜껑 열리기 직전, 나를 다스리는 법 __ 머니플러스
리바똥 장군(청소년현대문학선 24) __ 문이당
릴리 선장 이야기 __ 조선일보사
매직 램프 __ 원앤원북스
맨발의 기봉이 __ 황금나침반
메타피지컬 클럽 __ 민음사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__ 랜덤하우스중앙
미국의 역사(상식과 교양으로 읽는) __ 웅진지식하우스
미래의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7가지 원칙 __ 당대
밀다원 시대(청소년현대문학선 25) __ 문이당
반딧불 강 __ 문학동네
비키니 입은 현대미술 __ 랜덤하우스중앙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__ 황금나침반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 __ 에코의서재
상사보다 먼저 집에 가면 안되나요? __ 행간풍경
새하곡(청소년현대문학선 30) __ 문이당
생애보다 긴 밤(청소년현대문학선 29) __ 문이당
서른살 여자가 스무살 여자에게 __ 토네이도
성공의 심리학 __ 부글북스
성공한 엄마들은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했을까 __ 에코의서재
세계명화의 수수께끼 __ 비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말 __ 물푸레
소풍 __ 창비
수목장 __ 도솔
시베리아 횡단철도 __ 나무와숲
신의 유전자 1, 2 __ 노블마인
아는만큼 행복이 커지는 가족의 심리학 __ 다산초당
아름다운 얼굴(청소년현대문학선 28) __ 문이당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 __ 한겨레출판사
아버지를 위한 변명 __ 리더스북
아베의 가족(청소년현대문학선 26) __ 문이당
아빠 하루 10분이 아이의 공부 머리를 깨운다 __ 명진출판
아이들 그림의 비밀 __ 섬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 2 __ 문학동네
어둠 속의 다이버 1 __ 조선일보사
어른으로 산다는 것 __ 갤리온
여자생활백서 __ 해냄
역사를 왜곡하는 한국인 __ 반디
연애시대 2 __ 소담
엽기 조선왕조실록 __ 추수밭
우리 과학의 수수께끼 __ 한겨레출판사
우연의 법칙 __ 웅진지식하우스
인간관계에서 진실한 마음을 얻는 법 __ 랜덤하우스중앙
인생수업 __ 이레
잃어버린 신발 열 켤레 __ 흰물결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__ 생각의나무
죽음, 또 하나의 세계 __ 동아시아
진짜가 된 헝겊토끼 __ 도솔
클레식광 그림을 읽다 __ 세미콜론
틉새 __ 창비
프라하 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 __ 문학동네
피타고라스가 보여주는 조화로운 세계 __ 프로네시스
하늘을 나는 푸른 저전거 __ 정음
학교 안의 미술 학교 밖의 미술 __ 책세상
한국사의 천재들 __ 생각의나무
한국인의 자서전 __ 웅진지식하우스
한류 이야기 __
이채
허균의 우리 민화 읽기 __ 북폴리오
MBA식 문제 해결 노트 Q&A 30 __ 비즈니스맵

신.앙.도.서

21C 한국형 리더십 __ 가이드포스트
5만번 응답받은 기도용사 조지 뮬러 __ 겨자씨

간절한 매달림 __ 규장
교부들의 신학사상 __ 그리심
기독교철학의 모색 __ UCN
기적을 부르는 무릎 __ 예수전도단
나는 예의바른 크리스천인가 __ 한국문서선교회
내가 매일 기쁘게 __ IVP
네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__ 미션월드
당신을 성공시켜라 __ 연세말씀사
로뎀나무 아래서 __ 생명의말씀사
루터, 칼빈, 웨슬리 다시 읽기 __ 그리심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 숨쉬는 소망 __ 서로사랑
부흥 예배자 __ 규장
부흥의 여정 __ 규장
사도행전 29장 __ 교회성장연구소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__ IVP
상담의 기초 __ 장신대출판부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 __ 사랑플러스
생명공학시대의 생명주권 생명사랑 __ 생명의말씀사
성, 거룩한 갈망 __ IVP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__ 예배와설교아카데미
성서적 사고하기 __ 예찬사
세잔의 사과 __ 토라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__ 디모데
소망 있는 기다림 __ 좋은씨앗
손으로 읽는 신약성서 __ 크리스천헤럴드
순간을 살아서 영원으로 __ 쿰란
신앙생활 ABC __ 프리셉트
신약성경 이해를 위한 주요 문헌 여행 __ 크리스챤출판사
십대들의 교회 찾기 __ 겨자씨
십일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 펠러 __ 미래사
십자가 중심에 선 예배자 __ 예영커뮤니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__ 좋은씨앗
어린이 영혼의 찬양전도자 패니 크로스비 __ 아이러브처치
어린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__ 생명의말씀사
어린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__ 겨자씨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__ 좋은씨앗
엄마, 나도 마음이 아파요 __ 죠이선교회
여자, 성서 밖으로 나오다 __ 대한기독교서회
예수! 그를 만나다 __ 푸른초장
예수님의 7터치 __ 두란노
예수님의 마지막 일곱 말씀 __ 대한기독교서회
온전한 치유를 위하여 __ 서로사랑
용서와 화해 __ IVP
우리 부부 처음 사랑 되찾기 __ 토기장이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 __ IVP
웰 다잉, 영원한 소망 __ 해븐
위글스워스 __ 믿음의말씀사
위대한 신앙(출애굽기 강해 3) __ 기독교문사
윌리엄 케리와 떠나는 여행 __ 부흥과개혁사
자녀 마음을 여는 열쇠 __ 홍성사
자녀의 마음에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 __ 디모데
전도특공대 만들기 __ 쿰란
조지 뮬러 기도법 __ 규장
존 번연과 떠나는 여행 __ 부흥과개혁사
중년기 이후의 부부 이렇게 사랑하라 __ 베다니출판사
차라리 아이를 울려라 __ 예수전도단
창조과학 성경공부(크리스천 리더로 가는) __ 갈릴리
축복 인생 __ 생명의말씀사
카피 커피 구피 __ 가이드포스트
터키 성지순례 __ 예루살렘
하나님과의 대화 __ 브니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 __ 브니엘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 여자 __ 사랑플러스
하늘 정원의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다 __ SFC
한국교회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__ 국민일보
핵심교리 성경공부(크리스천 리더로 가는) __ 갈릴리
The Impossible is Possible __ 가이드포스트
WBC 성경주석(현재까지 번역된 39권) __ 솔로몬

어.린.이.도.서

37가지 도깨비 이야기 __ 한림
가득가득 한가득 __ 랜덤하우스중앙
가로세로 세계사 __ 김영사
개구리와 뱀 __ 보리
국어 시간에 읽는 동화 __ 푸른책들
국어를 잘 해야 다른 공부도 잘 한다 __ 예림당
기억이 뇌 속에 있다고? __ 주니어김영사
꼬마 바이킹 비케 1, 2 __ 논장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꼬마시민학교 1) __ 푸른숲
나는 잭이다 __ 진선
나무도 나무나름 쓸모도 쓸모나름 __ 랜덤하우스중앙
난 어디서 왔을까?(꼬마시민학교 5) __ 푸른숲
내 마음대로 할거야(꼬마시민학교 2) __ 푸른숲
내가 찾은 암행어사 __ 풀빛
너도 하늘말나리야 __ 푸른책들
대한민국 큰 섬 독도 __ 덩더쿵
독일에서 보물 찾기 __ 아이세움
되살아난 마법 __ 주니어파랑새
러시아에서 보물 찾기 __ 아이세움
먼지야 자니? __ 산하
못다 핀 무궁화 __ 진선
미국에서 보물 찾기 __ 아이세움
배꼽 __ 푸른책들
비가 오면 __ 사계절
빛나는 로마역사 이야기 __ 꼬마이실
빛에 에너지가 있다고? __ 주니어김영사
삐삐는 언제나 마음 대로야 __ 우리교육
생명체는 모두 한 형제라고? __ 주니어김영사
세계 최고 공주 __ 큰북작은북
세상에서 가장 재미 있는 세계사 1, 2 __ 궁리
스티브 모리슨 이야기 __ 진선
알과 암탉 __ 시공주니어
엄마 아주 어렸을 적에 __ 진선
위기탈출 넘버원 __ 밝은미래
이건 불공평 해!(꼬마시민학교 4) __ 푸른숲
인간도 기후를 변화시킨다고? __ 주니어김영사
인류의 희망 미래과학 __ 오랜지나무
일본에서 보물 찾기 __ 아이세움
종이 한 장의 마법, 지도 __ 길벗어린이
짜장면 불어요! __ 창비
찐찐군과 두빵두 __ 문학과지성사
천재 교수의 과학 캠프(인체ZONE) __ 을파소
천재 교수의 과학 캠프(생명ZONE) __ 을파소
천재 교수의 과학 캠프(발명ZONE) __ 을파소
천재 교수의 과학 캠프(우주ZONE) __ 을파소
테오와 그림자 __ 큰나
투덜이 장과 멍랑한 장 __ 아이들판
풀 익는 냄새 봄 익는 냄새 __ 랜덤하우스중앙
학교에 꼭 가야 해?(꼬마시민학교 3) __ 푸른숲
홀리스 우즈의 스케치북 __ 동산사

책 Book

완전한 진리(Total Truth)

저자는 프란시스 쉐퍼의 제자로서 이 책을 통해서 그의 30년 이상의 저술을 집대성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세계관을 다룬 책들과는 달리 구체적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성경의 진리는 종교의 영역 뿐만 아니라 인생과 우주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답하고 설명해 주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진리임을 논증한다. 2005년에 미국에서 여러 상을 휩쓸면서 '꼭 읽어봐야 할 책'으로 선정되었다.

저자 : 낸시 피어시 역자 : 홍병룡 출판사 : 복있는 사람
가격 : 24,500원

예수처럼 경영하라

저자는 예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구원과 진리를 선포했던 영적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지상 최대의 조직을 만든 경영자로 보고 그의 삶과 사역에서 어떤 경영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지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은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저자 : 밥 브리너 역자 : 최종훈 출판사 : 청림출판사
가격 : 9,800원

사람을 위한 영성

2004년에 미국에서 '올해의 책'을 수상했던 이 책은 우리가 몸을 가진 사람이기에 일생의 치열한 몸부림 자체가 영성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기도나 예배와 같은 소위 신성한 영역뿐 아니라 식탁과 침실과 화장실과 운동장과 장례식 같은 일상의 영역에서도 찾을 수 있는 기독교 영성을 탐구한다.

저자 : 로드니 클랩 역자 : 홍병룡
출판사 : IVP(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가격 : 11,000원

음반 Music

BEST CCM 100(6CD)

외국의 CCM이 듣고 싶지만 어떤 곡이 누구의 노래이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 이런 컴필레이션 음반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특히 이 음반에는 아발론(Avalon), 뉴스보이(Newsboy), 페트라(Petra), 그리고 얼마 전 한국에서 공연을 가졌던 스티브 커티스 채프먼(Steven Curtis Chapman) 등 때로는 편안한 포크 사운드로, 때로는 강렬한 록 사운드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적셨던 찬양사역자들의 곡들이 담겨있다.

기획사 : EMI 가격 : 22,000원

MEJ -CAN'T STOP PRAISING(CD)

미제이는 'Mission of Entertainer in Jesus'의 약어로 신앙이 있는 가수를 비롯한 연예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이 땅의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선교적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모인 비영리 단체이다. 이 앨범은 가수 에스더의 찬양인도로 진행된 집회의 실황이 담긴 앨범으로 다른 어느 찬양 실황 앨범 못지 않은 열정을 느낄 수 있다.

가격 : 10,000원

김도현 2집-성령이 오셨네(CD)

'맨발의 성자(聖者), 맨발천사'로 불리는 최춘선 할아버지를 아는가? 할아버지의 삶을 바탕으로 '보혈', '예수는 나의 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라는 곡들을 수록했다. 김도현은 이번 음반에서 최춘선 할아버지의 인생을 통해 기독교인의 삶을 찬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가수 : 김도현 기획사 : 버드나무 가격 : 10,000원

2006년
다니엘배 탁구대회

★ 개인전 및 복식전 (복수출전도 가능) ★ 각 조별 토너먼트 방식
(평일 및 토요일 저녁 시간에 실시하며, 시간을 상호 협의하여 실시)

▶ 대　　상 : 만 30대의 왕십리교회 남자 성도는 누구나
▶ 대회 기간 : 2006년 8월 19일 ~ 2006년 9월 30일
▶ 접수 기간 : 2006년 8월 12일(토)까지
▶ 참가 인원 : 단식은 32명을 선착순 접수하며,
복식은 동기가 아닌 인원으로 구성된 8팀을 선착순 접수
▶ 조추첨일시 : 2006년 8월 12일 17시 교회 이웃봉사관
▶ 접 수 처 : 매 주일 이웃봉사관 내 카페 운영시간
▶ 문　　의 : 박병수 집사(017-269-1861) / 김태일 집사(010-4789-3875)

사랑의 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십리교회
WANG-SIM-NI PRESBYTERIAN CHURCH

▶ 상품 내역

단식	1등	100,000원상당의 상품권
	2등	80,000원상당의 상품권
	3등	50,000원상당의 상품권
	4등	30,000원상당의 상품권
	믿음상	30,000원상당의 상품권
	소망상	30,000원상당의 상품권
	사랑상	30,000원상당의 상품권
복식	1등	200,000원상당의 상품권
	2등	100,000원상당의 상품권
	3등	50,000원상당의 상품권

빗 속 달리기

지소영

비가 오는 날이면
가족들은 급하게 우산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들려나간 우산은
좀처럼 집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어디선가 다른 주인을 만난게지요.

엊그제,
외출을 하는데 마침 우산이 딱 떨어져
가랑비를 맞으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맞은 비를 시작으로
저는 밤늦게까지 비를 맞았습니다.

차로 집에 바래다 준 사람에게
잊은 말이 있어
막 출발하는 차를 쫓아갔는데
그는 저를 못보고 달렸고
어쩜 그렇게 때맞춰 가랑비는
소낙비로 변하던지…….

기왕 뛴 거 멈출 수 없어
구두까지 벗어들고 400미터를 달려
차는 잡았지만 저는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고 말았답니다.

집에 돌아와 구멍 난 양말에
상처 난 발에
온 몸이 저리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저는 제가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인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제 안에 무엇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열정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야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겠습니다.

가끔은
인생길에서
소낙비를 만날 때
우산 없어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로 인해
목표를 향해서
더 빨리 뛸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예배안내 및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1부 : 오전 7시 30분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1시
- 백봉산 예배 오전 11시 / 오후 2시
- 주일 찬양 예배 오후 3시

몽골어예배/중국어예배 : 오전 11시

수요 예배

- 1부 : 오전 10시 30분
- 2부 : 동절기 오후 7시 00분 / 하절기 오후 7시 30분

기도회

- 새벽 기도회 1부 매일 새벽 5시
- 새벽 기도회 2부 매일 새벽 6시
-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 주일 학교 안내

- 영아부 오전 11시
- 유치부 오전 11시
- 유년·초등·중등·고등부 오전 9시
- 유·초등부 2부 오전 11시 30분
- 청년부(주일 4부) 오후 1시

▶ 성경공부안내

- 새신자 7주 공부 : 각 예배 후
- 장년 2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30분
- 장년 1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30분
- 장년 3부 성경공부 : 오전 10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www.wpc.or.kr

발 행 인 : 오치용 목사 **주 필** : 박영우 장로 **주 간** : 이종훈 집사
취 재 팀 : 장숙현 집사(팀장), 박병수 집사, 임현석집사, 지은정집사, 홍지혜 이수정, 서주은
객원기자 : 서명은, 차주영 **미술 디자인팀** : 김현정, 유정림, 김윤주

편 집 : 출판위원회 왕십리신문사 발 행 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4
☎ 교회 : 02-2299-1011 출판실 : 02-2295-0114 FAX : 02-2292-0309 인쇄 및 제작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85-4109)